"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48호 HYUNBULNEWS.COM 2025년 9월 24일(음력 8월 3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지역 불교대학 운영꿈 디지털대학 대안 '부상'

코로나19 후 대면교육 한계 봉착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방안 급물살
2022년 내포불교대학 시작으로
7개 불교대학서 150명 수학 중
월 1회 이상 오프라인 수업진행
소속감 증장 위한 서비스 제공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 부설기관인 디지털불교대학이 지방 인구 감소와 교통 불편으로 운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사찰 불교대학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후 전통적인 대면 교육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온라인 기반 교육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체계적인 불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신도교육 방안으로 평가된다.

코로나 이후 지역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대학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신입생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대면 교육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디지털불교대학이 대안으로 부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기반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사찰 현장과 연계해 수행·봉사 프로그램을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사찰과 신도 모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요소다.

디지털불교대학은 2005년 조계종 포교원 부설 포교사대학원으로 개원해 2010년 사이버불교대학과 통합, 온라인 불교교육기관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초심자부터 포교사까지 불교에 대한 깊은 공부를 원하는 이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온라인으로 연결된 '장경각'으로 평가받고 있다.

디지털불교대학을 가장 먼저 활용한 곳은 내포불교대학(학장 정범 스님)으로 코로나19 이후 신도교육을 고민하다 2022년 디지털불교대학을 활용해 불교대학을 가동했다. 신도들은 학기 동안 정해진 커리큘럼 대로 온라인 강좌를 듣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신심을 다졌다.

원활한 진행이 확인되자 이후 동참 불교대학이 늘어 났다. 현재 내포불교대학,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청평사 불교대학, 동구사 불교대학, 신원사 불교대학, 원주불교대학, 행복한절 등 7군데서 150여명이 디지털 불교대학을 통해 수학하고 있다.

내포불교대학의 디지털교육을 주도한 정범 스님은 "교통 불편을 토로하는 신도뿐 아니라 교수사 수급의 어려움이 단번에 해결됐다"면서 "다만 공간을 통한 신행활동을 놓칠 수 없기에 온·오프라인의 적절한 조화가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스님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사찰에 모여 교육을 점검하고 행사 참여와 봉사를 통해 소속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 진불선원 선불교대학은 디지털불교대학을 활용한 불교대학 중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3년 전 디지털불교대학을 도입해 1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진불선원 선불교대학은 일주일 두 번의 수업 중 하루는 온라인, 하루는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진불선원 관계자는 "신도 연령대가 높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여러 번 돌려보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면서 "과목을 개별 신청해 다시 보기 하는 졸업생도 있다"고 귀띔했다.

조계종 포교부에 따르면 디지털불교대학 활용으로 만족감을 표하는 불교대학이 늘어나자 제휴를 문의하는 사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나주 불회사 등 두 곳이 최근 인가를 받아 실무협의 중이고 2곳은 상담을 진행 중이다.

나주 불회사 주지 철인 스님은 "교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불교대학을 개설하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디지털을 활용한 불교대학 개설로 지역 사찰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가 9월 1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한 '2025 Young Camp: 주인공'에서 동국대 재학생 3500여 명이 수계하고 불자로서의 삶을 서원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3500 동국인 '불자' 되다

동국대 건학위 9월 16일 '영캠프'
'청년 전법' 원력으로 2회째 열려
1, 2차 신청 매진…인기 '실감'
3500여 동국대 재학생 동시수계
119회 지역불자육성장학 수여도

세찬 가을비도 참된 불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하는 동국인들의 불심(佛心)을 막을 수 없었다. 3500 동국대 재학생들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며 청년 불자로 거듭났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위원장 윤재웅)는 9월 16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2025 Young Camp(이하 영캠프): 주인공'을 개최했다.

'영캠프'는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가 '청년전법이 희망이다'라는 원력으로 지난해 처음 개최했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참여하며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전법 축제를 만들어가는 '영캠프'는 올해도 동국대 불교학생연합 학생기획위원단이 '청년불자 씨앗'을 심겠다는 목표로 행사를 기획했다.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전법 축제인 만큼 재학생들의 관심도 시작 전부터 뜨거웠다. 지난 9월 4일 오후 7시에 진행된 참가 신청은 시작 2분 만에 마감됐고, 성원에 힘입어 진행된 500석 추가 신청도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행사 당일에도 시작 1시간 전부터 장충체육관이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영캠프의 하이라이트는 3500 재학생들이 참여한 수계법회였다. 수계법회 전계대화상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3사7증엔 원명·종호·진화·성화·덕조·도림 스님 등 법인 이사·감사 스님 등이 참여했다.

법상에 오른 돈관 스님은 "동국 주인공 3500명이 강림하는 순간이다. 이를 굳이 표현한다면 '감동' 두 글자 밖에 없다"고 술회하고 오계의 중요성을 대중에 설했다. 돈관 스님은 "수계는 자기를 찾아가는 길잡이이자 자기 역할을 다하겠다는 자신과 부처님과의 약속"라면서 "어두운 긴 밤을 밝히는 등불이며,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뗏목이며,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는 양식이 되고, 병든 이에게는 좋은 약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를 수지한 학생들은 108명 스님들의 연비의식으로 지난 잘못을 참회하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다. 스님들은 3500여 학생들에게 연비를 대신에 염주를 전달하며 학생들이 참된 불자로 거듭나길 기원했다.

수계법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학생 대표로 수계증을 받은 주현석 학생기획위원단장은 "개인적으로 '보살'이라는 개념을 좋아하는데 오늘 수계한 모든 학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며 보살도를 실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학생기획위원단 부단장도 "오늘의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이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청년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계식 후에는 제119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참여자 전원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신중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AI그림 공모전' 수상자 발표

'2025 현대불교신문 AI그림 공모전' 수상자가 선정됐다.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8월 4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 'AI그림 공모전'에는 총 207명이 응모해 대상에 김하림 씨의 '전화(戰火)에 피어난 연화-무언(無言)의 관세음이 전하는 자비', 최우수상에 송찬호 씨의 '디지털 윤회(輪廻) 속, 영원(永遠)을 응시하는 시선'과 김다현 씨의 '멈춤의 공(空)간'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송기현 '21세기의 부처님, 여행 유튜버' △전수빈 '폐허 속의 자비' △박영규 'UN 평화대사 부처님'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임우진 '새로운 형태로 모두의 마음에 스며드는' △정현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양(供養)' △조이환 '자비의 등불, 얼음 위에 피다' △김기현 '퍼스널컬러를 찾아주시는 부처님' △윤민지 '연기의 클럽 (Buddha Bounce)' △송우석 'ZEN 2.0' △조환희 '셰프 부처님-2600년 경력의 요리사' △김재원 '케이팝 무대 위에 선 부처님' △김진민 '부처님의 발걸음' △임병진 '부처의 꽃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으로는 박종래 UNIST 총장, 유주연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장, 박훈 현대불교신문 미디어위원, 양경수 웹툰 작가, 주현우 해탈컴퍼니 대표가 참여했다.

선정작은 10월 1일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10월 8일자 현대불교신문에 게재될 예정이다.

종책제안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연구소는
종단의 미래를 설계하는 토대가 되는 각종 종책을 만들어내는
총무원장 직속 기구입니다.
불교의 중흥과 종단의 발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부대중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를 종책 개발의 초석으로 삼고자
〈종책제안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연구소

공모 분야

구분	내용	시상내역
불교종책 분야	- 교육, 포교, 수행, 복지 등 전반적인 불교계 관련 종책 아이디어	최우수상 1명 (상금 500만원)
불교사회 분야	- 종단이 사회의 각 분야와 함께할 수 있는 관련 종책 아이디어	우수상 5명 (상금 각 200만원)
종단재정 분야	- 종단이 건전한 수익을 창출하여 승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종책 아이디어	장려상 10명 (상금 각 50만원)
기타 분야	- 위의 3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종책 제안	

※ 시상 내역은 공모 접수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 불기2569(2025)년 10월 31일(금)까지
- 보내실 곳 : fourdeva@wehago.com
(※우편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
- 문의: fourdeva@wehago.com / 02-2011-1940

수상자 발표
- 11월 17일(월) 이후 수상자 개별 통보

원고작성 요령
- 한글 워드프로세서 최소 A4 5장 이상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기준)

유의사항
- 1쪽 상단에 반드시 제목, 성명(또는 법명), 제출 분야, 현재의 소속, 휴대폰번호를 기입해야 함.
(※위 내용을 작성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반드시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야 함.
- 이미 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책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함.
-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경우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처리하며, 시상 이후에 밝혀졌을 경우에는 상장과 상금을 회수함.
- 선정된 종책제안의 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대한불교조계종에 귀속됨.